

PEOPLE

2025년 4월 29일 화요일

전남도농업기술원
커피 가공 실습 세미나 개최

전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행란)은 최근 화순군 도곡면에서 전남커피연구회 회원을 대상으로 '커피 수확 후 가공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전남은 따뜻한 기후와 풍부한 일조량 등 커피 재배에 유리한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어, 최근 커피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K-커피 산업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재배 및 가공 기술 개발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전남 지역 커피 재배 농가 및 가공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커피 품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확 후 가공 방법을 주제로 이론 강의와 실습을 병행한 실용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최정 전남농업기술원 차산염연구소장은 "수확 후 가공은 커피의 최종 품질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단계로, 이번 세미나는 현장 적용이 가능한 실질적인 기술 교육이었다"며 "앞으로도 전남 커피의 고품질화를 위한 기술 보급과 전문 인력 양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



광주새농민회

'아침밥먹기 운동' 동참 호소

(사)한국새농민 광주시회는 최근 광주 광산구 월전동에서 4월 정기회의를 진행하고, 쌀 소비촉진을 위한 범국민 운동 '아침밥먹기 운동'에 도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올해 첫 정기회의로 새농민 부부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소득 증대 방안, 품목별 분과회의, 회원 간 농업경영 및 기술 개선에 관한 정보 공유, 후계 새농민 육성, 쌀 소비촉진 사업 건의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열띤 토론을 펼쳤다.

특히 쌀 소비 감소와 가격 하락 등 농업 현장의 현실을 반영해 쌀로 만든 아침밥을 쟁겨 먹는 작은 실천이 농업·농촌과 지역사회의 건강을 지키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공감대를 형성했다.

노홍기 한국새농민 광주시회장은 "광주 대표 선도농업인 단체인 새농민회가 우리 쌀로 만든 아침밥을 쟁겨 먹는 작은 습관 전파로 농업·농촌과 지역사회의 건강을 지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광주도시공사

염주실내빙상장 어린이날 개방

광주도시공사(사장 김승남)는 제103회 '어린이날'인 다음달 5일 광주실내빙상장을 어린이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어린이날 행사는 오는 5월 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50분까지 만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무료 개방한다. 다만, 장갑과 운동복은 개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어린이날을 기념해 피겨스케이팅 꿈나무 공원이 열리며, 빙상장 내에는 추억을 남길 수 있는 포토존도 운영될 예정이다.

양동민 기자 yang00@



광주 자원봉사단, 의성 산불피해 긴급 복구 돕는다

시, 120명 파견 '온기 나눔 캠페인'
비닐하우스 폐기물 정리 등 봉사
강 시장 "재난 복구 지원 도울 것"

광주시가 산불 피해를 입은 경북지역에 자원봉사단을 파견해 긴급 복구를 돕는다.

광주 자원봉사단은 28일 경북 의성군 일대 산불 피해를 입은 비닐하우스 농가 등을 찾아 폐기물 정리 등 신속 복구를 위해 봉사활동을 펼친다.

이번 활동은 전국 16개 시·도의 '온기나눔 캠페인'으로 진행된다.

참여 인원은 광주시 및 5개 자치구 자원봉사센터 직원과 자원봉사자 76명, 기업협의회 10명, 광주시 새마을회 20명, 호남대학교 의용소방대 10명 등 총 120여 명 규모다.

참가자들은 비닐하우스 폐기물 처리 및 정리 작업 등 실질적인 복구 활동에 나서며, 복구에



광주 자원봉사단은 28일 경북 의성군 일대 산불 피해를 입은 비닐하우스 농가 등을 찾아 폐기물 정리 등 신속 복구를 위해 봉사활동을 펼친다.

필요한 예산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및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로부터 지원을 받았다.

시는 이번 지원활동을 통해 경북지역 산불 피해 주민들에게 따뜻한 연대와 위로를 전하고, 범시민 협력의 힘으로 빠른 일상 회복을 도울 계획이다.

강기정 시장은 "산불 피해 지역의 아픔을 나누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여준 시민들에게 감사 드린다"며 "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재난 현장 복구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3월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경남, 울산 지역에 재해구호기금 2억5000만원을 지원했다.

또 청송군과 산청군에 응급구호키트, 광주명 길에 필요한 재난 현장 복구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광주국세청, 직원 대상 인문학 특강...“소통 노력”

관행 개선 7대 항목 중점 추진도

광주지방국세청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명사 초청 인문학 특강을 이어가고 있다.

광주국세청은 최근 전북은행 본점 대강당에서 직원 270여명을 대상으로 김경일 아주대학교 교수를 초청해 인문학 특강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교수는 '마음의 지혜: 한국인의 행복과 회복탄력성'이라는 주제로 열린 강연에서 "행복은 목표가 아닌 도구이며, 크기가 아닌 빈도다"고 강조하고 긍정적 사고와 느슨한 관계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박광종 청장은 직원들이 격무에서 벗어나 힐링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높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명사 특강을 마련해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 12월 문화심리학자 김정운씨와 개그맨 고명환씨의 강의를 시작으로 영화평론가 이승재씨, 역사학자 이익주씨, 동양철학자 박재희씨와 강연을 펼쳤다.

특히 이번 강연은 그동안 광주지역에서만 실시돼 참석이 어려웠던 전북권 세무서 직원들을 위해 처음으로 전주시에서 개최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이와 함께 박 청장은 건강한 직장문화 정착에 각별한 관심을 쏟고 있다.

공직사회의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할 수 있도록 관리자가 솔선수범해야 할 '7대 중점 추진사항'을 선정해 포스터와 Y배너를 제작·배부했다. 또 일선 세무서 및 지서 현장을 찾아 청사·기술사·구내식당 등에 대한 불편과 건의사항을 수렴해 개선하는 등 패착한 근무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광주 복구는 영남지역의 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한 성금 1억여원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했다.

광주 복구, 영남 산불 피해복구 성금 1억 전달

광주 복구는 영남지역의 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한 성금 1억여원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전달된 성금액은 역대 최약이라고 평가받는 산불로 피해를 입은 영남지역의 이웃을 돕고자 마련됐다.

복구는 지난달 27일 성금 모금을 시작해 주민과 공직자, 단체, 기업 등 지역 각계각층의 자발적인 참여로 1억원이 넘는 성금을 모았다.

전달된 성금은 피해 주민의 긴급 생계 지원비와 피해 지역 복구 등에 활용된다.

이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중흥 골드레이크컨트리클럽, 학생 장학금 지원

중흥그룹 골드레이크컨트리클럽이 최근 '제31회 남평읍민의 날'을 맞아 지역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행사에는 임대형 중흥그룹 골드레이크컨트리클럽 사장을 대신해 이민우 운영팀장이 지역의 우수 인재로 선정된 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남평읍민의 날은 지역 우수한 인재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한 지역 기관사회단체와 단체원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매년 실시해 오고 있는 행사다.

중흥그룹은 매년 2000만원을 각종 행사지원 및 지역 내 우수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전달하고

나주=조환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있으며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통해 지역 대표 기업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다.

이민우 운영팀장은 "골드레이크가 위치하고 있는 남평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 지역 우수한 인재가 배출돼 미래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전, 7개 출자회사와 자율·책임경영협약

한국전력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효율적인 지배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에 나선다.

한전은 최근 한전 아트센터에서 캠퍼이엑스, 캠퍼코솔라, 한국해상풍력, 제주한림해상풍력, 캠퍼스, 한전CSC, 한전FMS 등 7개 출자회사와 함께 자율·책임경영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글로벌 경영트렌드에 맞춰 출자회사 이사회 중심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보장하고, 명확한 경영목표와 합리적 평가를 통해 책임경영을 강화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이드라인에



서 강조된 경영 자율성·이사회 독립성 원칙을 공공기관 출자회사에 실질적으로 적용한 국내 첫 사례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한전은 이사회 중심의 독립 경영 권한을 출자회사 사장에게 최대한 보장하고, 법령에 정해진 주주권 외 경영 간여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승홍 기자 photo25@



동구, 청렴동구 추진단 1차 보고회 광주시 동구(구청장 임택)는 28일 상황실에서 신리반은 청렴동구 실현을 위한 청렴동구 추진단 1차 회의를 열고 반부패 종합계획 및 부서별 청렴시책을 논의했다. 사진제공=광주시 동구



동진계절음식, 서구에 장학금 기탁 광주시 서구(구청장 김이강)는 28일 서구청 구청장실에서 동진계절음식(대표 박현국)로부터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금 300만원을 기탁 받았다. 사진제공=광주시 서구